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 장 19 절]

NO	성명	기도 제목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 장 3 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교회를 위한 기도

1)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10/15(목)~10/18(주일), 추계부흥성회 | 강사: 박순애전도사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 (대상 29:12)
- 10/17(토), 제 4 차 일천번제 종료 감사예배

2) 한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10/22(목)~ 25(주일), 세상의 빛 동광교회 50 주년 기념 부흥집회
- 10/26(월)~29(목), 은혜동산 #18
- 11/2(월)~4(수), 전주 바울교회 부흥성회 (담임 신현모 목사)
- 11/16(월)~21(토), 추수감사 특별새벽부흥회



가정교회 보고서

은혜한인교회

가정교회 예배안

10.11.26



가정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

불행을 끝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 | 요한복음 5:1-15

네가 낯고자 하느냐 ...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 Welcome

요즘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 준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난 한 주 Grace Time 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2. 말씀요약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낚는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38 년 동안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불행은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38 년 동안 묶여 있던 인생을 일으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추계부흥성회를 앞두고, 불행의 원인과 참된 회복의 길을 살펴봅니다.

1) 모든 사람에게 () 것이 불행이다

“네가 낚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 줄 ()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8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고, 그의 가장 깊은 상처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사 49:16). 모세와 요셉처럼, 낮고 힘든 자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병자는 몸이 병든 것은 알았지만 영혼의 상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 절). ‘죄를 범하다’(하마르타노)는 ‘()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병든 줄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을 바로 볼 때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3) ()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병자는 고침을 받고도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13 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주신 분을 몰랐습니다. 작은 모라비안 공동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28 년 동안 226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병자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증언했습니다(15 절). 치유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8 년 동안 병자를 붙들고 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간증이 되고, 상처가 사명이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3. 함께 나눠봅시다

- 1) 「 불행을 끝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 」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2) 지난날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음을 깨달은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감사와 소망이 되었나요?
- 3)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번 추계부흥성회를 앞두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초청하겠나요?

합심기도

버림받은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